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48]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0. 10. 30 | 발행인 : 민무숙



제주지역 여성근로자의 일자리¹⁾

선민정²⁾

목 차

1. 서론
2.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변화 현황
3.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변화 실태조사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1) 본 내용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정여진·손태주·선민정·이화진(2020)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여성의 삶과 가족의 변화」 연구보고서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2)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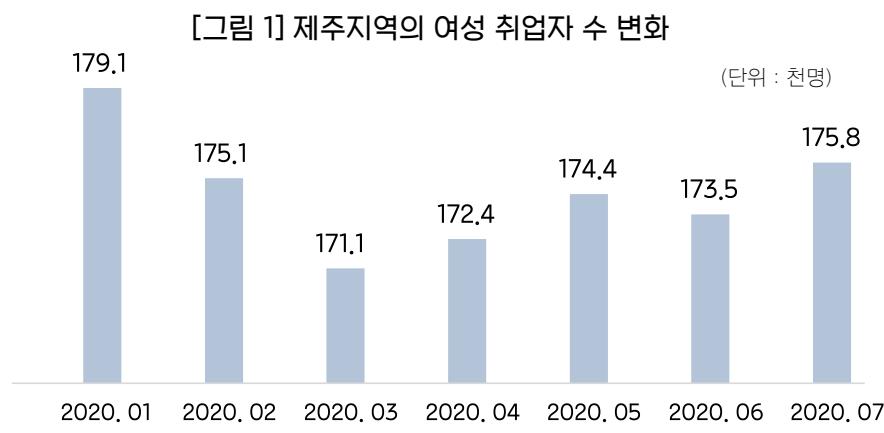
1. 서론

-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 생활 및 사회·경제 활동 등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재구조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의 변화는 많은 근로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인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동년 9월의 전국 여성 취업자 수는 454천 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573천명이 증가했음(통계청, 2020b). 즉 전국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고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전국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일자리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에 제주지역에 대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어떠한 변화와 위협이 나타나는지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변화 현황

■ 제주지역의 여성 취업자 수 변화

- 제주지역 여성 취업자 수는 코로나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때쯤인 2020년 1월에는 179,100명이었으나 동년 7월에는 175,800명으로 3,300명이 감소했음. 여성 취업자 수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급감하였으며, 4월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통계청, 2020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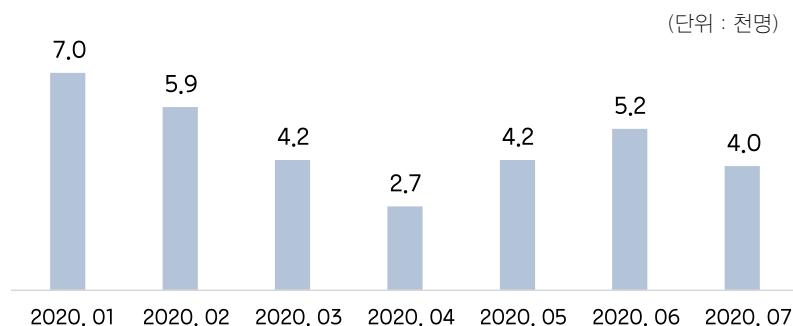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주지역의 여성 실업자 수 변화

- 제주지역 여성 실업자 수는 2020년 1월에는 7,000명이었으나 2020년 7월에는 4,000명으로 3,000명이 감소했음. 여성 실업자 수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감소하다 5월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통계청, 2020a)

- 이와 같은 양상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동일 기간 동안 함께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 수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경제활동을 하기 원하는 여성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감소된 실업자 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고 보여짐

[그림 2] 제주지역의 여성 실업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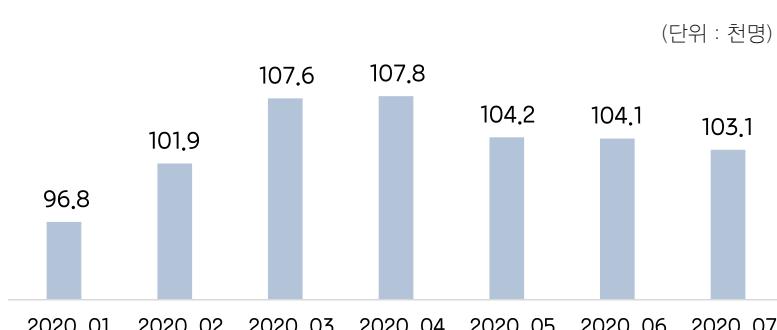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주지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 변화

- 제주지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20년 1월에는 96,800명이다 2020년 7월에는 103,100명으로 6,300명이 증가했음.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급증하다 5월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음(통계청, 2020a)
- 이는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주요한 특성으로 보임. 즉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여성들이 실업 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시장 상황의 악화 및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자체를 일시적으로 단념할 수밖에 없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임
- 5월부터는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5월부터 시작된 정부 또는 도의 지원 정책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유추됨

[그림 3] 제주지역의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수 변화



출처: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3.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여성 일자리 변화 실태조사 결과³⁾

■ 대상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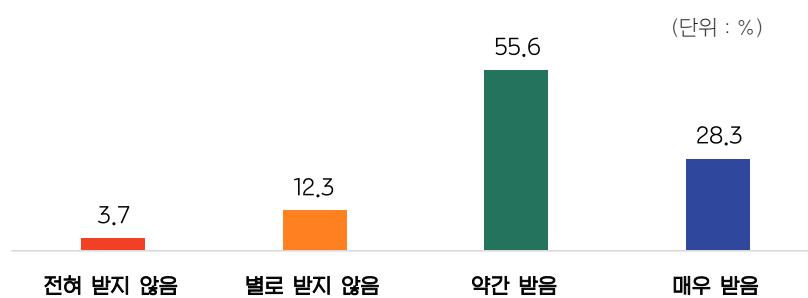
- 설문에 응해준 여성근로자의 특성으로 연령은 30대 이하(20~39세)가 49.2%, 40대(40~49세)가 37.4%, 50대 이상(50~60세)이 13.4%였음
- 결혼상태는 기혼이 60.4%, 미혼이 31.0%, 기타(이혼/별거/사별)가 8.6%였음
- 월 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41.7%,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40.1%, 300만원 이상이 18.2%였음

■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험 인식

● 여성근로자의 스트레스 증가

-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83.9%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구체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매우 받는 경우는 28.3%였으며, 약간 받는 경우는 55.6%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성근로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보여줌

[그림 4]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3)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코로나19와 일자리 변화'라는 주제로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20~60세 여성근로자 및 여성사업자(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등 포함) 352명을 조사했으나, 응답 오류 등에 따른 데이터 클리닝을 통하여 최종 응답자는 302명임 본 연구에서는 조사된 자 중에서 20~60세 여성근로자 187명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음
- 표집방법 : 제주도 관련 온라인 카페 두 군데와 제주지역 유관기관 이용자, 이외에도 지인 등을 통하여 무작위 표집하였음. 해당 연구가 무작위 표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음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방식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음. 조사는 전문 조사업체를 통하여 2020년 7월 16일부터 8월 2일 동안 수행되었음

● 여성근로자의 임금 감소

- 여성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감소의 위협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42.2%가 임금 감소의 위협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금 감소에 대한 위협을 매우 받는자는 14.4%였고, 약간 받는자는 27.8%로 나타났음

[그림 5]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감소 위협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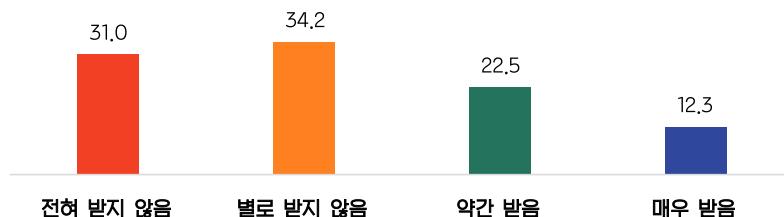


● 여성근로자의 휴직 위협

- 여성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에 대한 위협 정도를 조사한 결과, 34.8%가 휴직의 위협을 받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직에 대한 위협을 매우 받는 경우는 12.3%, 약간 받는 경우로는 22.5%로 나타났음

[그림 6]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위협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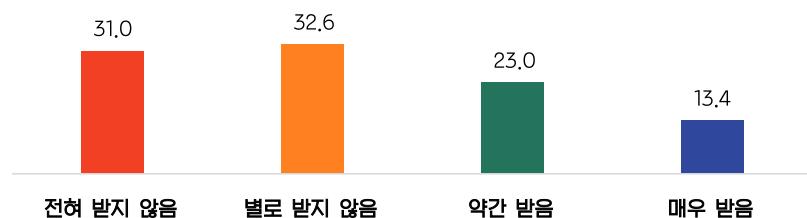
● 여성근로자의 실직 위협

- 여성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에 대한 위협 정도를 조사한 결과, 36.4%가 실직의 위협을 받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에 대한 위협을 매우 받는 경우는 13.4%, 약간 받는 경우로는 23.0%로 나타났음



[그림 7]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협 정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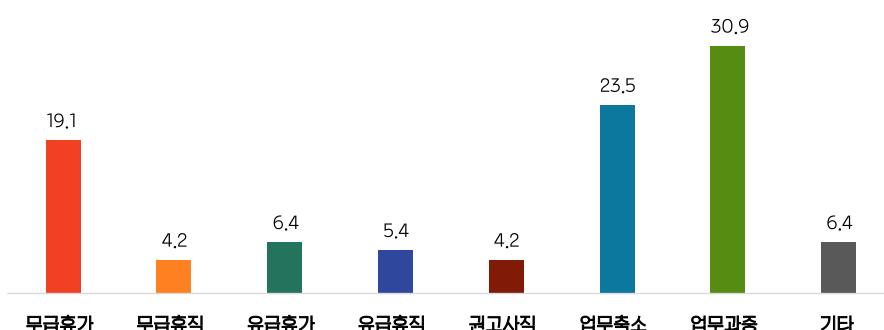


■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변화 경험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의 변화 경험을 겪은 여성근로자는 50.3%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경험한 일자리 변화로는 업무과중이 15.5%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축소가 1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무급휴가가 9.6%, 유급휴가와 기타가 각각 3.2%, 유급휴직이 2.7%,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각각 2.1%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에는 육아휴직이나 업무방식 재구조화 등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업무 과중이나 축소와 같이 업무 양의 변화는 27.3%, 유급 및 무급 휴가 사용은 12.8%, 유급 및 무급 휴직 사용은 4.8% 등으로 나타났음. 업무 양의 변화뿐만 아니라 휴가를 사용한 경험도 10%가 넘어서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휴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5% 가까운 여성근로자들이 휴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근로자들의 임금 및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의 변화를 경험한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해 본 결과, 업무과중이 30.9%로 가장 높았음. 두 번째로는 업무축소가 23.5%, 세 번째로는 무급휴가가 19.1%로 높게 나타났음. 또한 유급휴가와 기타가 각각 6.4%, 유급휴직이 5.4%,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이 각각 4.2%로 나타났음

[그림 8] 여성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 경험

(단위 : %, n=111)



4. 정책적 시사점

■ 여성 고용 안정 지원

- 조사 결과에 의하면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휴직과 실업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대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고용 안정 지원이 필요함. 즉 해고, 권고사직, 휴직 등에 있어서 성차별 금지 및 점검을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중앙정부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최장 240일을 지원해 주게 되었지만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도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여성 집중 업종 근로 지원

- 여성 집중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감염 노출에 대한 위험이 높음에도 근무환경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되며(최청락 외, 2020), 마스크와 같은 방역용품 제공과 함께 방역 지원 등을 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코로나19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여 피로감이 높은 해당 여성근로자들을 위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횟수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고, 관련 내용을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함

■ 가족돌봄휴가 확대, 지원금 보조

- 제주지역에서 코로나19 이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이유로 돌봄 공백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임. 가족돌봄휴가가 연 20일까지 확대되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의 확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즉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현재는 1일 5만원씩 20일이 지급되는데 도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추가 보조해주어야 할 것임

■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및 긴급 돌봄도우미 지원

- 여성근로자들이 휴가 사용이 많고, 휴직 및 실직 위험 인식이 높은 이유로 자녀 돌봄 공백을 들 수 있음. 여성근로자의 자녀 돌봄 공백으로 인한 휴직 및 실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돌봄 지원이 필요할 것임.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돌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촘촘히 하고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긴급 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맞벌이 가구에서 필요 시 해당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줄 수 있는 도우미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새로운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비대면 직업훈련 시스템 구축

- 많은 여성들이 실업 등의 위협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여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로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학교 등의 기관에서 새로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여성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비대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하이브리드형(온·오프라인 교육 방법 병행) 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임

■ 미래형 여성 일자리 개발

- 코로나19는 전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대면 접촉이 많은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음. 제주지역의 여성들이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어서 (신승배, 2019) 여성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발굴 및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미래형 여성 일자리 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선행돼야 할 것임

〈참고문헌〉

- 신승배(2019).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최청락 · 김혜정 · 문정희 · 이자형 · 박금식 · 이진숙(2020). 「코로나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 전략」.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통계청(2020a).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2020b).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조사」